

영혼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왕하20:1-7

성경 기록의 목적(롬15:4), 우리의 배움, 소망, 인내, 그래서 특별히 역사서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 왕국 분열 르호보암, 여로보암

유다에는 20명의 왕,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 사무엘기, 열왕기는 40여 명의 왕 이야기
인간 역사에 등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성품의 인간들 등장, 아무리 훌륭해도 모두 죄인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들이 있고 교만하게 굴다가 구원받지 못한 왕들

비율로 보면 20% 구원, 80% 비구원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인물: 히스기야, 대언자 이사야 시대의 좋은 왕

심한 고난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험하게 교만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
지난주는 내게 매우 힘든 주, “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차를 타고 가다가 존 파이프의 목회
사역 회고 동영상, 약 33년 동안 목회, 항상 은혜와 기쁨의 설교, 인생 후반부에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받을 때까지 약 3개월 동안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꼈다.

나 같은 범인은 상상해 볼 수 없는 간증, 너무 놀라고 부끄러웠다. 아마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눈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도 성도들도 울어야 할 때에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여러 차례 우셨다.

신구약 성경에서 인간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울음을 보여 준 사람은 히스기야, < >, 눈물의 용도

히스기야의 통치(왕하18-20장)

히스기야: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 25세 즉위, 29년 통치(18:2)

그의 시대: 급변하는 시대, 북 왕국의 호세아 시절 아시리아 살만에셀의 침공, 나라 멸망(BC 721년)

원인: 우상숭배, 말씀을 버림, 민족들 이주, 사마리아 사람들 및 지역 탄생

온 세상이 시끄럽고 평안이 없던 시대에 유다의 왕이 됨.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 나라를 다스림
그에 대한 평가(18:3),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

히스기야의 개혁(왕하18:4; 대하29:3-31:21)

즉위하자마자 한 것은 종교개혁, 산당들을 제거하고 언덕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타파, 성전 예배 부활
(18:4)

왕하에는 개혁이 1절로 요약됨(왕하18:4), 역대기하에는 자그마치 3장(29-31장)

1. 성전 정화(대하29:3-19)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피폐하게 만들(28:24), 악한 아버지에게선 선한 왕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성전을 지으려 한다)

이것이 잘못되면 백성과 국가의 패망,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요4장).

예배의 핵심: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의 흠모함을 표현하는 것

2. 성전 재봉헌(20-36)

3. 유월절 기념(30장)

솔로몬 사후, 왕국 분열, 12지파가 유월절을 함께 지킨 적이 없음, 연합을 위해 같이 지키려 함
이 동안에 그들이 한 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22)

4. 히스기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왕하18:7-12)

호세아의 제3년에 왕이 됨, 호세아의 9년에 이스라엘 멸망, 히스기야의 제6년

5.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1차 침공(18:13-16): 이스라엘 멸망 후 8년 지나서 히스기야의 통치 제14년
이때에 히스기야는 믿음이 심히 약하여 은과 금을 주의 집과 왕의 집에서 찾아내어 넘겨줌.

6. 산헤립의 2차 침공(18:17-19:37)

산헤립이 50킬로미터 떨어진 라기스에서 몇 사람을 히스기야에게 보냄(17)

대표인 랍사게의 모욕: 헛된 확신을 갖지 말라. 주의 뜻에 의해 올라왔다(25).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백성에게 소리 칩(29)

다른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출한 신이 어디 있느냐(33-34)?

하물며 너희 신 여호와가 어찌 너희를 구할 수 있느냐(35)

히스기야의 기도(19:14-19): 주 여호와만 하나님입니다(15). 다른 나라 신들은 우상들이다(18).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19)

이사야의 대언의 말씀(19:20-34)

내가 나를 모독하였으므로 너를 네 나라로 돌려보내겠다(27).

유다에는 남은 자들의 다시 열매를 낸다(30-31).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31).

내가 유다를 도우므로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32-34)

19:34절 말씀 읽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 185,000명을 죽임(35)

7. 히스기야의 수명 연장(왕하20; 대하32:24-26; 사38:1-8)

원인(대하32:24-26): 히스기야의 교만

이사야의 강력한 경고(왕하20:1), ‘네 집을 정리하라’, ‘왕좌도 넘겨라.’

히스기야가 한 일(2);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주님과 대면함

3절: 그는 자기의 선한 행적을 주님께 말씀 드리고 통곡함 wept sore(쓰라리게).

5절: 하나님의 말씀, 네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의 대언(6): 15년 수명 연장과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보호. 병이 나음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히12:1-11).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실이다.

징계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앞날을 위해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

이때에 영혼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 회개의 눈물, 간절하게 회복을 바라는 눈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 복 받은 성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

눈물이란 무엇인가?

M. R. 디한 박사 “피(눈물)의 화학적 성질”: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눈물의 편지이다. 우리는 모두 눈물에 친숙하다.

성경 역시 눈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린아이, 어른, 심지어 예수님이 우시는 것,

성경에서 눈물이 처음 언급되는 곳은 열왕기하 20장 5절,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는 죽을 정도로 아팠고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그는 얼굴을 벽으로 돌린 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흐느껴 울었고 그 눈물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는 죽음의 손길을 멈추시고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

눈물에 대해 성경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매우 즐거운 모습과 관계가 있다. 그 부분은 성경의 끝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

유다 왕국의 왕이 부르짖을 때에 그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마지막 때에는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 잘못을 범한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기쁨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슬픔, 고통, 절망과 실망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인류의 독특한 자기표현 방식. 사람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 동시에 감정 표현 차원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짐승은 못한다.

눈물은 눈물샘에서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눈물은 육시의 기관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온다.

눈물은 육체를 괴롭히는 것들보다는 영혼을 짊어 고통으로부터 더 많이 나온다.

“도대체 눈물이란 무엇인가?” 화학자들은 눈물이란 것을 염화나트륨과 칼슘 그리고 몇 가지 화학 물질들이

액체 상태로 녹아 있는 것

성경적으로 보면 눈물이란 영혼의 깨끗한 물로서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진 깊은 갈망이 화학 성분의 액체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체를 통하여 걸러진, 마음의 가장 그윽한 곳에 자리한 감정의 최종 결정체

빛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온통 적셨다. 이것은 자신의 길이 잘못됐음을 고백하는 죄인의 눈물, 모든 눈물 속에는 상처받은 가슴, 산산조각 난 가정, 저버린 희망, 축복의 손길 등이 있다.

많은 종류의 눈물: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걸까요?”

1.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눈물: 침대 속의 아기는 어떤 불편함, 옷에 대한 부적응, 배고픔 때문에 또는 안전핀에 찔려 고통의 눈물을 흘린다. 첫 이를 빼는 일, 질병이나 사고를 통한 육체적 고통, 일시적인 것들의 손실로 인하여 오는 알팍한 슬픔의 고통
2. 빛나간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전 희망을 걸었고 자신의 꿈을 엮어 갔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변덕스러움으로 인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될 때 흘리게 되는 젊은 연인의 눈물.
3. 사랑하는 자녀를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눈물, 부모 형제 친척
4. 낙망의 눈물, 용감했으나 패배로 돌아가 버린 투쟁 뒤에는 마지막 용기마저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린다. 용감히 싸웠지만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5. 후회의 눈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베푸는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후회의 눈물에 대해 언급하셨다(마8:12 포함 7번).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한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으나 지금은 굳게 닫혀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들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올 수 없는 동굴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통곡한다. 때늦은 후회의 눈물

눈물의 용도

눈물의 용도는 무엇일까? 아이가 운다고 망가진 장난감이 고쳐질까? 어머니가 운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한 영혼이 울며 이를 단다고 다시금 지옥의 문이 열려 출구를 찾게 될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1. 눈물은 언젠가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그날을 대비하여 이 눈물의 골짜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왜냐하면 고통과 눈물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기꺼이 떠나고 싶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에 대해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아 힘들다. 지쳤다. 빨리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늘로 가야겠다!”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해 보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갈망, 고통과 눈물로부터 영원히 자유를 얻어야겠다는 생각
2.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준다. 일이 다 잘될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통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살펴본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사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려 본 사람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 있다. 고통의 용광로를 거치고 눈물로 목욕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라. 그의 기도 소리는 다르다. 이제는 미사려구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한다. 누가복음 18장 9-14절,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자랑의 기도, 통회하는 기도, 어디에서 눈물과 고통에서
3. 눈물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필요하다. 오늘날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려면 위로하는 사람 자신이 고통의 눈물을 흘려 보았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감이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4. 특별히 죄인들의 눈물도 생각해 보자. 주님 보시기에 이 눈물들은 심히 소중하다.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눈물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채찍질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 속의 고통은,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을 때 가장 컸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울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가 비통하게 울었다.”(눅22:12)는 복된 말씀이

있다. 이 슬픈 눈물이 그분께는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 때문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영, 통회하는 영(시51:17)

5. 지옥 속에 떨어진 사람의 눈물을 생각해 보자: 쓸 데 없는 눈물, 소망이 없는 눈물,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눈물 등.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은혜와 긍휼을 거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바로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을 받아들이라.
6.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보자. 즉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흘리셨던 그 눈물과 겐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떨어뜨려야만 하셨던 눈물을. 그분께서 우심으로 인해 당신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그분께서 고난받음으로 인해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사 53:4-5).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눈물을 씻겨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7. 성경에서 눈물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계시록 21장 4절에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계21:4).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 다시는 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신다.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시56:8)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네 눈물을 다 보고 기록하였다. 거기에는 다 목적이 있었다. 이제는 영원토록 우는 일이 없다.”

롬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126:6)